

호록번호 21-3

제 목	국 문	환율변동에 따른 의료보험 진료수가의 영향을 산출 - 한 대학병원의 원가분석을 중심으로 -		
	영 문	The Calculation of Effected Rate Medical Insurance Fee Schedules according to Fluctuation of Foreign Currency Exchange Rate through Cost Analysis in a University Hospital		
저 자 및 소 속	국 문	박은철, 박웅섭, 김소윤, 임종건*, 김영삼*, 김한중, 손명세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,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*		
	영 문	Eun-Cheol Park, Woong-Sub Park, Sohyoon Kim, Jonggun Lim*, Yongsam Kim*, Han Joong Kim, Myongsei Sohn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, Medical Collage of Yonsei University, Institute of Health Services Research, Yonsei University*		
분 야	보건관리	발 표 자	김소윤	
발표 형식	구연	발표 시간	15분	
진행 상황	연구완료 ( O ), 연구중 ( ) → 완료 예정 시기 :    년    월			
<p><b>1. 연구 목적</b></p> <p>환율상승에 대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수가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의료행위별로 환율에 영향받는 정도를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. 이번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중별 환율변동에 따른 의료보험 급여항목의 원가 변화를 산출하고, 의료보험 진료수가분류(이하: 진료수가 분류)별로 원가변화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. 또한 의료기관 중별 변화율과 전체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산출하고자 하였다.</p> <p><b>2. 연구 방법</b></p> <p>의료행위별 진료비용의 산출과 수입품이 차지하는 진료비용의 산출방법은 원가 중심점별로 부문별 원가를 집계한 후 이를 표준의료행위분류와 표준치과의료행위분류에 따른 의료행위별로 할당하여 계산하였다.</p> <p>의료보험 진료수가 분류별 원가 중 수입품이 차지하는 분율을 구하기 위해 청구경향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. 청구경향 조사 자료의 표본조사대상은 1994년 8월 진료비 명세서 중 일부이며 표본의 추출은 요양기관종별, 진료형태별, 지역별 조사건수를 결정하고 조사대상 요양기관을 무작위 선정한 후 조사 대상기관의 지급명세서를 요양기관종별, 진료과목별, 상병기호순으로 층화 계통추출하였다.</p>				

### 3. 연구결과

본 연구의 결과 한 대학병원에서 총 진료비용 중 수입품의 비용 분율은 21.12%이었다. 또한, 각 항목 중 국산으로 대체가능한 경우에 대체한다고 가정하였을 때, 총 진료비용 중 국산을 대체하고 난 후 수입품 비용 분율은 19.59%이었다. 이는 의사 인건비와 별도 보상되는 약품비와 재료비를 제외한 총 진료비용 중 21.12%를 수입품의 구입에 사용되고 있으며 19.59%는 국산대체가 가능하지 않은 수입품을 구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. 진료수가분류별 생산원가에서 국산대체 전 수입품 비용이 차지하는 분율은 의원급에서 4.96%, 병원에서 10.67%, 종합병원에서 14.48%, 3차병원에서 17.08%이었으며, 총 의료기관에서는 7.93%이었다. 진료수가분류별 생산원가에서 국산대체 후 수입품 비용이 차지하는 분율은 의원급에서 4.29%, 병원에서 9.39%, 종합병원에서 12.86%, 3차병원에서 15.19%이었으며, 총의료기관에서는 6.96%이었다.

### 4. 고찰

본 연구는 환율변동이 의료보험수가항목의 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, 환율변동에 따른 의료보험수가의 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.

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. 첫째, 본 연구는 한 대학병원의 자료로만 수행되었으므로, 연구결과를 전체 의료기관과 모든 급여항목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. 둘째, 상대가치 개발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와 진료비용 중 수입품의 분율을 조사한 시점이 다르므로 체계적 오류가 있을 수 있다. 셋째, 청구경향조사가 전국적이고 전 의료기관의 의료행위의 빈도를 조사한 자료이지만 그 조사기간이 8월 한달 밖에 되지 않아 계절에 따른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조사기간이 짧아 일반화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. 넷째, 환율변동에 따른 생산원가의 변화를 생산원가중 수입품의 비용 분율로서 직접적인 효과만을 측정하고자 하였으므로 실제 환율상승에 따른 원가상승률은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의 영향으로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,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.